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건설...영암을 혁신하겠다”

우승희 영암군수

“낡은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길, 혁신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1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도, 행정도, 군민의 생활도 완전히 새로운 ‘혁신 영암의 길’을 닦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군수는 “혁신의 목표는 ‘군민이 주인인 영암’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젊은 군수를 만들어 주신만큼 젊은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영암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행정이 주민을 이끌며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군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 군수 생각이다.

행정 중심, 관 주도의 시대에서 군민에 기반한 민관협력의 시대로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그는 민선 8기를 이끌어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영암’,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영암’을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군민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군정 계획과정에서부터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투표 도입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군민 중 무작위 추첨

주민 참여 정책자문위·주민투표제...월출산 자원 콘텐츠화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미래 인재 육성 청년 친화 도시로

을 통해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특정 소수가 아닌 각계각층의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행정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목요대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군민과 공직자가 마주 앉아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제약적 단체장의 문제를 극복해 혁신군정을 이끌어 갈 생각이다.

지역의 혁신을 위해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과 모두를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목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하고 평범한 군민들이 존중받는 영암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혁신 영암프로젝트’ 중 청년 친화 미래선도 경제가 눈에 띈다. 어떤 내용인가?

▲군정 최우선 과제인 지방소멸 극복과 인구 복원을 위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예산과 정책을 청년과 미래혁신에 투자하겠다.

청년공공주택과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청년기금과 청년정책지원팀을 신설하겠다. 영암형 완전고용시스템 구축과 100개의 사회적경제 조

직 프로젝트 실현, 농업·제조업·서비스업·사회복지 등 분야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마을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군민발전소 설치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대전환 선도 도시를 조성하겠다.

또 교육 때문에 영암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지역 대표 고등학교 육성과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300인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청소년 국내외 체험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 거점 육성에 대한 방안은.

▲전체의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해 영암을 남도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공원 박람회와 달빛 축제를 개최해 국립공원 월출산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이 되게 하겠다. 월출산 깃대종인 남생이와 곤충박물관 등을 활용해 영암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브랜드도 만들겠다. 영암읍성을 복원하고, 한성봉, 왕인,



천자문, 도선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겠다. 이를 추진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스프호텔, 유스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음식거리 조성, 상가리모델링과 상권 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해 머물고 가는 영암을 만들겠다.

-농업 활성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일련지 영암을 만들겠다. 1차 산업 농업 군에서 가공과 유통, 마케팅까지 연결되어야 영암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과 군민의 소득으로 직결된다.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과 농산물 전문유통공사 설립, 기간장터 부활 등을 통해 이루겠다.

또 전 군민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농민수당 확대로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존중받게 하겠다. 고향사랑기금 설치와 농특산물 담래, 축산 및 경종 농가 상상전략으로 잘사는 영암을 만들겠다.

-따뜻한 복지를 실현을 강조했다는데 어떤 정책인가.

▲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돌봄 체계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힘이 되는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군민 주치의제 도입, 여성회관과 평생교육센터 건립,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이주센터 설치,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과 어르신 건강마일리지 도입, 보건의료 체계 보완 등 아이들과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정부는 쌀값 폭락 막고 가격안정 대책 마련하라”

영암군의회 건의안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가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영암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을 주장했다.

또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도 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시·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업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야구장 인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50여대 주차장·휴게시설 등 갖춰

영암군이 농어촌버스 업체의 차고지 부족과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한 차고지는 영암읍 영암야구장 주변 균유지 2979㎡에 들어섰으며 50여대의 버스 주차가 가능하다.

사무실, 휴게시설, 정비시설,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3억6000만원을 신청했으며 부대시설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차고지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휴게시설 설치로 버스운수종사자의 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군, 친환경 공동방제 관계자 교육 실시

영암군이 친환경 공동방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경단지 대표, 방제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친환경 공동방제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교육에서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운영배경과 운영지침, 관계자별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란 방제업체가 공동방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거쳐 군에 사용 예정인 방제약품, 사용량 등을 기재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신고한 내용대로 방제업자는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친환경경단지 대표는 현장에서 사전 계획대로 방제약품을 사용하는지, 허용물질 외 약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농가 및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차질을 빚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 등 안전성 관리 강화 등 개정된 내용을 담은 교육



을 실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온 농가들의 노력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해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옳은 선택을 하고자 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